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유형② 기술융합 창제작지원 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② 기술융합 창제작 지원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 2023년 2월 14일(화) 13:30-17:30
 - 2차 인터뷰심의 : 2023년 2월 20일(월)~2월 21일(화) 09:10-18:10
- 회의장소 : 비대면 온라인심의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변화된 예술계 흐름 중 하나가 있다면 하나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다변화된 예술표현방식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창작방식뿐만 아니라, 예술을 향유하는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의 방식에서도 감각되는 현상입니다. 예술지원제도 역시 다양한 형식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장르별 활동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왔습니다.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은 그 목적과 취지가 더 명확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융합을 통한 기초예술 분야의 예술적 표현방식의 확장, 그것을 기반으로 한 예술적 경험의 확산은 물론,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동시대의 예술적 화두와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적 성취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진행된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유형② 기술융합 창제작지원]은 완성형 단계의 예술과 기술 융합 작품제작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기초예술분야의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확장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근간으로 한 심의기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술적 의도 및 기술융합 예술에 대한 구체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예술성과 참신성 40%), 창작활동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기술 활용 목적의 필요성, 기술융합을 통해 예술표현 및 가치의 확장성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기술융합의 적정성 30%), 마지막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의 충실성,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수행역량과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한 향후 발전가능성(과급력과 수행역량 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은 물론 통합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관점의 심의진행을 위해 심의위원회는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창작자, 기술-융합 예술 기획자 및 전문연구자, 예술관련 비평가,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기술이 예술에 적용되는 방식과 예술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심층토론을 통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는 총 187건의 지원신청 중 42건(일반공모 36건, 연속지원 6건)을 2차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신청자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형② 기술융합 창제작지원]의 경우, 기술융합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참신성과 기술융합의 적합성 뿐 아니라, 예술표현 방식의 확장성, 사업 운영 계획의 구체성과 실

현가능성, 발표 공간의 적합성, 사업수행 기간 및 사업규모의 적절성, 사업수행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운영의 구체성을 주요 심의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속지원 사업의 경우 1차 심의를 통해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고, 2차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심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했던 지점은 예술과 기술융합의 적합성입니다. 본 사업이 기초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예술 표현방식의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술 활동의 장치 효과로서의 기술 활용이나, 개발된 기술의 적용 수단으로서의 예술 활용이 아닌, 예술과 기술의 상호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별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기술개발비, 참여자 사례비, 제반비용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도 중요하게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26건(일반공모 20건, 연속지원대상 6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유형② 기술융합 창제작지원]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분야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융합이 이전보다 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확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적 상상력이 공학 기술과 만나 새로운 예술 표현방식으로 적용되고, 그것이 예술계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본 사업을 통해 발견되는 유의미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전히 내용적 결합이나 협업보다는 작품의 보조 수단으로서 기술을 활용하려는 계획이나, 기술 자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획 등 본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지 않거나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기획이 많았던 것은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 볼 수 있었던 대목은 예술과 기술의 협업이 보다 견고해지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더 촘촘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예술가와 기술 전문가가 지속성을 갖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보다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② 기술융합 창제작지원 심의위원 일동